

한국 노동절 연휴일본 골든위크 빠르고 친절한 출입국심사지원

-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4. 30. ~ 5. 5.)」 시행
- 출입국자 급증 시간 심사 인력 증원으로 혼잡 완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나라 노동절 연휴(5. 1. ~ 5. 5.), 일본의 골든위크(4. 29. ~ 5. 10.) 등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출입국하는 내외국인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4. 30. ~ 5. 5.)」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4. 30.(목) ~ 5. 5.(화)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 승객은 약 130만 명, 일평균 21.5만 명으로 예상되어 전년 동기간 대비 2.6% 증가될 것으로 예상(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

인천공항출입국청의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으로 첫째, 출국 승객이 집중되는 기간(4. 30. ~ 5. 2.)에는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의 주요 출국심사장을 30분씩 조기 개방하겠습니다.

※ (제1터미널) 2번 출국장 06:00 → 05:30, 4번 출국장 06:30 → 06:00, (제2터미널) 2번 출국장 05:30 → 05:00 개방

둘째, 출입국자가 급증하는 혼잡한 심사장에 투입되어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기동반(1일 20명)과 비상근무 대기반(1일 10명)을 편성하여 빠르고 친절한 출입국심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승객 밀집이 예상되는 시간대와 출국·입국 심사장 구역에 1~3시간 일찍 조기 출근하여 출입국심사관을 집중 배치하겠습니다. 가용한 출입국심사관을 조기 출근(76명 → 171명)하도록 하여 유인 출입국심사대를 최대한 개방(113개 → 168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승객 흐름을 모니터링하여 심사장 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감독 인원을 보강(18명 → 32명)하고, 승객 진입 구간에 외국어 안내 및 질서 유지도 강화하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인천공항출입국청의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을 통해 출입국심사장 혼잡도를 최대한 완화시켜 내외국인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심사를 받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연휴 기간에 ‘국민에게 수준 높은 출입국서비스, 외국인에게 다시 찾고 싶은 첫인상’을 제공하기 위해 출입국심사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부족한 출입국심사 인력은 꾸준히 증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정성호 장관은 지난 4. 23.(목)에 인천공항청에 방문하여 출입국심사 현장을 점검하였고, 같은 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토교통부, 인천 공항공사 관계자와 함께 인천공항 혼잡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주재한 바 있습니다.

담당 부서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김태형	(02-2110-4035)
	출입국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용	(02-2110-4045)

